

커지는 신용 경고음... 기업 돈줄 막히면 한국 경제 '발목'

중동 전쟁 확산에 유가 불안 커져 인플레이 압력에 급리인하 지연 가능성 실적 부진 기업 신용등급 하락 압박 회사채·CP 차환부담 돈줄 경색 조짐 투자위축 넘어 韓 경제 부담 가중

기업들이 '신용 강등 주홍글씨'를 받아들면 기업들의 조달 금리가 올라가고 부도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뜰이나 매출이 줄고 부실이 늘어 신용 등급이 낮아지는 건데, 기업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용 등급 하락 기업이 늘어나 '도미노 부도' 등으로 이어진다면 이미 부동산 부실, 가계 부채 증가, 내수 부진 등으로 체력이 허약해진 한국 경제에 또다른 '위기 뇌관'이 될 수 있다.

◆중동 전쟁발 신용 경고음 커졌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 국내 신평사들은 지정학적 갈등과 인플레이션에 경고음을 내고 있다. 24일 크레딧 시장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026년 신용테일 리스크(tail risk·확률은 낮지만 발생하면 파괴력이 큰 위험)로 '지정학적 균열'과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도 중동

국내 3대 신용평가사 '부정적' 등급전망

부정적 (28개사)	LG화학(AA+, 석유화학)	여천NCC(A-, 석유화학)
	한온시스템(AA-, 자동차부품)	대동(BBB+, 농기계)
	한화솔루션(AA-, 석유화학)	비에스한양(BBB+, 건축)
	한화토탈에너지스(AA-, 석유화학)	콘텐트리중앙(BBB0, 미디어)
	SK지오센트릭(AA-, 석유화학)	에스엘엘중앙(BBB0, 미디어)
	호텔신라(AA-, 면세)	깨끗한나라(BBB0, 제지)
	현대엘리베이터(A+, 승강기)	에코프로비엠(A0, 이차전지소재)
	동아에스티(A+, 제약)	풀무원식품(A-, 식품제조)
	포스코엔씨(A+, 건설)	신한자산신탁(A-, 신탁)
	HD현대케미칼(A0, 석유화학)	SK어벤스드(BBB+, 석유화학)
하향검토(27개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A0, 2차전지소재)	여천NCC(A-, 석유화학)
	한국자산신탁(A0, 신탁)	제이알글로벌리츠(A-, 부동산투자)
	SK실드스(A0, 보안)	한솔홀딩스(BBB0, 건축자재)
	대우건설(A0, 건설)	JTBC(BBB0, 방송)
	SK디앤디(BBB0/부동산개발)	SK실트론(A+/반도체)

전 확산과 유가 상승발 인플레이션이다. 무디스는 미국과 유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과 아시아 지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토 내부 분열이나 대형국가가 연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본 유출과 유동성 경색이 신용시장으로 빠르게 전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위험 프리미엄 상승은 특히 국경 간 노출이 크거나 도매자금 의존도가 높은 저신용 차주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S&P도 "한국은 중동산 원유와 가스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가격 상승이나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관련 산업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국신용평가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중동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국내 주요 산업들의 경영환경 전반에 중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급등, 에너지 수급 불안 등 실물경제 충격을 촉발한다"고 했다.

높아진 금리 기조 변화 여부도 기업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00달러를 넘나드는 정유가격이 시장(물가)에 반영되는 시기는 4, 5월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촉발해 금리를 밀어 올릴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 시점이 밀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준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 커졌다"며 "고금리 기조가 계속될 경우 기업의 재무부담가중 등 신용 등급이 낮아지는 추이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기업 대출 금리는 4.15%다. 대기업(4.09%) 대출 금리가 0.01%포인트(p) 올랐지만, 단기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중소기업(4.21%)대출 금리가 0.03%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0.01%p 떨어졌다.

◆신용 리스크,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

기업신용등급으로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등급이 결정된다. 이 때문에 기업 신용등급(회사채 등급 하락)이 떨어지면, 차환이나 신규 발행이 어려워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다. 상황

이 더 악화하면 휴플러스나 태영건설처럼 기업구조개선(위크아웃)이나 기업회생 단계를 밟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등급이 중동 전쟁으로 악화된 실적과 침체한 자금 조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올해 2분기 이후에는 신용등급 강등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투자은행 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실적 저하 폭이 커지고, 시중 금리 오름세가 지속하면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사업 경쟁력이 낮고 부채 부담이 큰 기업의 신용 위험이 특히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장 경보음도 울리고 있다. 국내 신평평가사 3사에 따르면 현재 '부정적' 전망 기업은 28개사, '하향 검토' 대상은 3개사다.

기업 신용등급 하락은 가계나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 '신용등급 하락 → 자금 조달 어려움 → 투자 위축 → 실적 악화 → 신용등급 추가 하락'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갈 길 바쁜 경제 회복이 더 늦어질 수 있는 셈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건설업계 덮친 '3高' 쇼크... 공사비 급등에 침체 장기화

〈고유가·고환율·고금리〉

유가 급등에 공사비 상승 불가피 고환율·고금리 겹쳐 수익성 악화 중동 발주 중단 등에 침체 장기화

중동 위기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건설경기 침체도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공사비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가가 급등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가 전쟁 이전인

지난달 27일 71.2달러에서 이달 13일 145.5달러로 두 배 이상 급등했고,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유(WTI)도 40% 이상 뛰며 100달러 수준까지 올랐다.

지난 23일(현지시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가능성 발언에 장중 14% 넘게 급락하는 등 유가 변동폭이 롤러코스터인 상황이다.

이번 중동 위기에서 가장 큰 위협요인은 유가다.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유가의 상승을 야기했지만 원유의 유통 자체는

우회 수출 등을 통해 큰 문제가 없었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중동 위기는 원유의 생산은 물론 유통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중동 지역의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건설산업의 경우 유가가 20%만 상승해도 토목공종은 7%, 건축공종은 4%의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공사비 원가에서 유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요인은 건설중장비에 활용되는 유류비다. 기계경비의 30% 수준을 차지하며, 토목공종의 경우 기계경비의 비중이 15%에 달한다. 이외에도 윤활유 및 아스팔트 계열의 석유화학제품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으며, 건축공종 역시 철근과 시멘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원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고유가에 고환율과 고금리까지 가중됐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전일 원·달러 마감 환율은 1517.3원으로 증가 기준 지난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자 금리 인하는 요원해졌고, 중장기 금리는 오히려 상승세다.

김 연구위원은 "현금흐름의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자비용 상승도 건설업체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중동 위기가 장기화되어 과거 석유파동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

전국 최고 수준의 기업지원과 최적의 산업입지로 성공이 보장되는 도시, 포항







입체적 광역교통망과 물류인프라, 풍부한 R&D환경과 우수한 기술인력 천혜의 해양관광자원과 체험형 해양문화공간 조성까지- 환동해중심도시 포항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창의 융합 혁신 포항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